

本 社 福岡市博多区東那珂3丁目9-26
〒816 電話 (092) 461-0055(代)
営業所 神戸市中央区国香通4-1-2新大国ビル702
〒651 電話 (078) 242-4018

東京信濃町教会総会加入式

関東地方十번째教会로

第三回定期総会から加入式礼拝が一九八三年十二月四日午後四時より日本基督教団信濃町教会で地方会各教会信者と日本教団の信徒が多数参加 가운데는 에스겔계 奉行되었다.

堂会長 金君植牧師の司会로 始作된 加入式礼拝は東京第一教会 高完福牧師の「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란說教が 있었다. 高完福牧師는說教를 통해서 참례하는 自身을 신세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라는 뜻을 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랑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존경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는자와 함께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사랑의 참모습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參加한 信徒들을 감동시켰다.

이어서 堂會長 洪永其牧師의 司式 아래 加入誓約과 宣誓가 있었고 関東地方會會長 朴米雄牧師의 長老의 시무問答이 있었다. 祝辭에는 堂會長을 대표하여 洪永其牧師가 関東地方會會長을 대표하여 李大京牧師가 祝辭하고 元老牧師 吳允吉牧師의 祝辭이어서 日本基督教団 信濃町教会 池田伯牧師의 祝辭가 있었다.

東京信濃町教会聖歌隊의 은헤스러운 찬양과 吳京世長老의 獨唱은 더욱 式典을 빛나게 하였다.

第二部에서는 同教会 婦人會가 整然스럽게 莊嚴한 飲食을 둘러싸고 사랑의 친목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과 聖歌를 부르는 것이었다.

同教会는 設立된지 十餘年の 歴史를 가지며, 總會加入과 同時에 國際連合會會로 부터 東京信濃町教会로 教會의 名稱을 改稱하였으며, 現在 시무장소가 三人이며 鄭然元牧師를 中心으로 教會形成과 發展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의 會가 될것으로 希望한다.

西南地方会和 婦人会 教会巡回 個人伝道講習会開催

西南地方伝道部(部長 李聖柱牧師)와 西南地方婦人会連合會(部長 南周也牧師)共催로 一九八三年十二月二十五일부터 一九八三年十二月三十一일까지 六일간 教會巡回個人伝道講習會를 가졌다. 講師는 李聖柱牧師(傳道會)가 담당하였다. 一日講習로서 오전十時三十分부터 시작하여 開會禮拝를 가치고, 個人伝道에 관한 강의를 오후三時三十分까지 하고, 個人伝道 實習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七時에 전도집회에 데리고 오도록 했다. 큰 성과를 얻었다.

오전 오후강습회에 참석한 員은 六교회로 一八二名이며, 발집회는 一九二名이며 새로 加入한 員은 二九名이었다. 새로 加入한 員은 二九名이었다. 새로 加入한 員은 二九名이었다.

宇部교회 七名
下関교회 四名
小倉교회 一名
折尾교회 一名
福岡교회 一名
熊本교회 七名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와같은 講習을 실시하고자 한다 고한 다.

在日韓國人合同 聖誕祝賀會열어

在日韓國YMCA서

지난해 12월18일 在日韓國YMCA 9층에서 在日韓國人聖誕祝賀會가 있었다. 在日韓國人聖誕祝賀會가 있었다. 在日韓國人聖誕祝賀會가 있었다.

이날 會는 第一部 音樂禮拝(司會 高完福牧師·指揮 吳京世長老)와 第二部 親交會(司會 高完福牧師·指揮 吳京世長老)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第一部에서는 聖歌를 부르고 찬양을 하며, 第二部에서는 親交會를 가졌다. 會는 聖歌를 부르고 찬양을 하며, 第二部에서는 親交會를 가졌다.

會는 聖歌를 부르고 찬양을 하며, 第二部에서는 親交會를 가졌다. 會는 聖歌를 부르고 찬양을 하며, 第二部에서는 親交會를 가졌다.

日比NCC合同協議會報告

橫須賀伝道所牧師 朴米雄

第一回 日比NCC合同協議會가 昨年十一月二十六日より三十日まで、神奈川県鎌倉市にある 関東学院大学(葉山キャンパス)에서 開催되었다. 日比NCC議長出席のもと, NCCJ(日本キリスト教協議會)議長李仁夏牧師의 開會禮拝說教로 始まった.

私は、この前日、NCCJの代表の一人として出席するようが、昨年十一月二十六日より三十日まで、神奈川県鎌倉市にある 関東学院大学(葉山キャンパス)에서 開催되었다. 日比NCC議長出席のもと, NCCJ(日本キリスト教協議會)議長李仁夏牧師의 開會禮拝說教로 始まった.

私は、この前日、NCCJの代表の一人として出席するようが、昨年十一月二十六日より三十日まで、神奈川県鎌倉市にある 関東学院大学(葉山キャンパス)에서 開催되었다. 日比NCC議長出席のもと, NCCJ(日本キリスト教協議會)議長李仁夏牧師의 開會禮拝說教로 始まった.

船橋教会で 教会堂起工式

一九八三年十二月七日(水)午前十一時に、関東地方船橋教会では、新しい教会堂の建築起工式が、地方会の牧師と同教会の信徒らが多数参加した中で行われた。

堂會長李大京牧師の司會により始められた式典は、吳允吉元老牧師の詩篇第二七篇によるメッセージ、總會總務金君植牧師の祝辭と吳允吉牧師の祝辭をもつて礼拝を終え、牧師と信徒らによるテープカットとくわ入れ式で起工式が終了した。

金頭球牧師의 母喪別世

金頭球牧師(札幌教会)의 母親 姜貞女史가 一九九日(月) 漢京에서 心不全으로 別世하였다. 享年七十八才。

分け与えるとは？

「飢えたものにあなたのパンを 分け与えよ」—イザヤ57：7—

聖書に聞く



を欲する。 乏しい時代には、分つことは 分けられないことである。 今ど だけだけの人がこの分つことの意 味を認識しているのだから、 分かちあうという言葉は忘却 の海に沈んでしまっている。 我々は分つことによるこび を再発見しようではないか。

パンを真二つにわけると、 パン独特の香りが放つ。 もの は割つてみて、その美しさがあら われるものである。 これはもの だけに過ぎず、食事や飲みもの、 家屋や故郷についても云え るのである。 共に楽しみを分か

つてはじめて、私はひとりの全 き人間となるのである。 このことは、霊的所有、即ち 信仰についてもあてはまる。 も し私が自分の信仰を他者と分か ちあうことができれば、信仰はま すく大きく、深く、強くなる。 もし他者が彼の信仰を私と分か ちあうならば、私の信仰は強めら れる。 パンはさかれる時、その 全体はこわれるかもしれないが、 そうしてはじめて、パンは本来 の意味をもつ。 さかえず、分か ちあえられず、食べられないパ ンは意味がなく、価値がない。 ものによつては、その本来の意

パンをさく、何故であろうか、 食べやすくする為なのか、或いは 分け与える為なのか、聞くところによれば、パンさきの習慣 は非常に古いものである。 父が母がすくなくパンを食事の直前にさいて、ひとりひとりにわけてやつ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おそらく充分な余裕がなかつたのであろう。 だからパンをさく事は分かつことと同じなのである。 今日、富裕な社会ではパンをさくといえ、口にされるのに便利だからである。 だがまさにここに、人間性あはか 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 子供は できれば何でも一気口口に飲みこもうとするものである。 普通 人間は自分で食べようとする ものである。 しかし、新しい 人間、新しいアダムは分つこと

得ない家なんて、お化け屋敷に すぎない。 ひとりぼっちの食卓 はど味気のないものではない。 誰 も足の踏み入れない部屋は牢に なるに違いない。

分つ時はじめて、ものはその 全き香りを放つ。 これは、精神 的なものについても同様である。 自分の知識、経験、能力が誰と も分か合わないとなれば、よろこ びにあずかれない。 もし誰か がかれの精神的所有を私に分け あたえるか、伝えてくれないか、 私は貧しく、萎縮してしま うであろう。 分かち合うことによ

味を發揮する為、さかれねばならぬものがある。 我々は他者 と語り得る為、時には、我意 がくだかれねばならぬことがある。 我々は弱者の氣持を共有し 得る為、時に強さが折られね ばならない。

飢えるものにあなたのパン を分け与えよ。 パンをさき、それ を彼と分かち合え。 そうすれば、 飢えるものの苦しみを和げるだ けではなく、私たちの幸福をも 増す。 分かち合うことがはじめて 我々を完全にするのである。

「十字架の言葉は、滅びゆく者には愚かであるが 救いにあずかるわたしたちには、神の力である」

美術箔押印刷 青山ホット工芸

代表 金太 悠 (西新井教会 長老)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四-25-12 電話 (03) 896-4083 番

カナダ製高級毛皮輸入販売
ヨーロッパ製有名ブランドバック販売
ドイツ最高級羽毛フトン輸入販売

有限会社 ハーン・トレーディング・カンパニー

代表取締役 李 博 (横浜教会々員)

〒236 横浜市金沢区並木2丁目7-6-402 TEL (045) 785-5140

韓国への引越しは AKATSUKI

☎(03)501-1487 戸口から↔戸口へ

創業15年

暁引越しセンター(株)

代表 金慶 得 (東京第一教会 長老)
〒105 東京都港区西新橋1-20-15 第二はやまビル1・3階

第一回宣教協力委員会
準備会議開かる

は、教役者だけでなく、一般信徒の参加を広く呼びかけている。また、この集会において、現在全国的になされている指紋押

韓・日西新井教会
合同キヤロル行う

昨年12月23日（金）午後七時

より、第二回目の西新井教会と日本キリスト教団西新井教会聖歌隊による合同クリスマス・キヤロルが行われた。

モニ・ハ・キヨのボランティアでもある堀切教会の穂高先生に音楽指導をしていただき、内容も充実したものとなった。

この交りは、西新井教会で現
 一行は、面教会合同聖歌隊の
 合唱する中、西新井駅前、大帥
 駅前にて、九時すぎまでクリス
 マス用のトラクト十枚を配布す
 るなど路傍伝道を行った。特に

明石教会献堂式行わる

苦節十年、涙と祈りの結実

一九八三年十二月十一日(日)
午後三時より、関西地方会明石
教会の献堂式礼拝が、地方会各
教会の信徒らと日本基督教団の

信徒ら約一二〇余名が参加した中で、盛大に行われた。

堂會長辛鍾國牧師の司會による式典は、總會長洪水其牧師の説教「聖殿奉獻と聖徒」の後、司會者による教会堂建築経過報告と信徒代表金雙釜執事の献獻があり、その後堂會長により奉獻宣言が行われた。

新築なった教会堂での献堂式



明石教会は、一九六八年四月に神戸教会伝道所として開拓した教会であり、一九七八年十月第三四回総会において、明石教会として昇格した。

中部地方会
聖誕祝賀音樂礼拝

婦人会和 青年会合同

捺反對署名運動に対する協力運動を、在日大韓社会局と教団の韓連連帯特別委員会が呼びかけ、韓連連帯特別委員会が共同で企画提案し、本委員会が呼びかけることも考えられている。

なお、第一回宣教協力委員会は2月8日、大阪KCC会館で開催される予定である。

合唱は韓国両国語で歌うなど、道行く同胞にもクリスマスマツセージを伝えた。

キャロルのあと、教団西新井教会で親睦会を開き、寒空の下での奉仕の労をねぎらい親睦を深めあった。

面教会は、配布したトラクトの作成にも全面的に協力し合い新しい共同作業として他分野への期待を持つことかでき、今後

も協力し地域活動を実りあるものとしていきたいと祈っていた。



西新井駅前での合同キャロル

中部地方婦人連合會와 青年會가 合同으로 크리스마스祝賀音樂札拜를 가졌다.

이 札拜는 楊松子婦人連合會長의 司會로 시작되어 성경누나복을二장八절―十四절의 말씀을 통해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李海春牧師가 설교를 하였고, 이어서 第二부에 들어가 조영자先生(정영자목사부인)의 指揮로 '메시아의 오심을 합창, 은혜송에 끝내 참석자 百三名에게 기쁨을 나누었다.

うに誤字及び変換がありましたので訂正いたします。

●札幌教会住所・〒062札幌市豊平区美園 条三丁目三二〇

●西新井教会電話番号三三五六を三三六五に訂正

東京第 一 教会高亮祐牧師・且黒区三田一―二―三三田ハイツ二〇二

●浦和伝道所・市外局番〇四二四を〇四二二に

●大阪教会劉時漢名誉長老・太阪市旭区新森六一―八―二五九九五三―五三四七

手帳訂正

總會手帳の住所録中、次のよ
うに誤字及び変更がありました
ので訂正いたします。

●札幌教会住所・〒062札幌市豊平区美園一条三丁目三二〇
●西新井教会電話番号三三五六を三三六五に訂正
●東京第一教会高元品牧師・目黒区三田一―二―三三三三田ハイム二〇一
●浦和伝道所・市外局番〇四二四を〇四二二に
●大阪教会劉時漢名誉長老・大阪市旭区新森六―八―二五九五三―五三四七
●大阪教会文昌叔名誉長老・大阪市東成区中道一―二―一五〇四〇五
●西成教会小杉牧師・大阪市西成区梅南一―八―三二二〇五六五八―二〇四五
●北部教会金萬永長老・〒636奈良市二町学園緑ヶ丘一―三五五―一四四〇七四二四五〇〇四一
●平野教会金安弘牧師・〒561大阪府八尾市竹淵三二〇六〇七五―七〇九―一五五九
●異伝道所及び福音伝道師・大阪市生野西区箕西四―八―二〇〇三三―一〇七
●武庫川教会・尼崎市稲葉元町三―一〇七
●新居浜伝道所・住所に新居浜の居の字がぬけているので挿入
●広島教会・市外局番〇八二を〇八三に訂正

関西聖書神学院

一九八四年度 学生募集要項

- [illegible]

福岡鉄筋工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李 潤 錫
(福岡教会 執事)

自宅 福岡市博多区千代5丁目5-17
電話 (641) 4085番

製銅原料・非鉄金属

武 本 商 会

代 表 者 斐 基 秀
(宇部教会 長老)

〒759-20 宇部市厚南区中野三之割十区
電 話 0836 (4 1) 1 7 6 8

博宝工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沈 栄 吉
(福岡教会 執事)

〒812 福岡市博多区大博町13-22
TEL 092-271-2126 番

韓国基督教100周年と神学的展望

한신대학교수 (조직신학)

김 경 재

(2)

二、동양 고등종교 및 사랑과 깊은차원에서 만나면서 니즘을 소화해야 한다.

지난 백년 한국기독교의 유형은 요한복음적 기독교이다. 나 사도바울의 서신들이 내포한 풍요로운 히브리적 헬레니즘의 기독교라기 보다는 「사도행전적 기독교」였다. 전통문화와 기존종교에 대한 완전한 부정과 무시, 기독교 복음과 예수의 영적정신적 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열매를, 세계 도시도시마다 선교의 거점교회를 세우는 것, 바로 그러한 유형의 기독교 백년사를 지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국민들을 통한 은혜의 손길에 기초하면서 또 한편 한국민족성서의 특성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동양의 고등종교 사상인 불교·유교·노장사상들은 아테네와 메소포타미아의 이슬람교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수천 년동안 깊은 종교적 정신적 힘으로 동양인들에게 그 종교적 감동을 해결해주고 오던 세계 최대 고등문화 유산이다.

한국 기독교인의 성장은 국민의 3분의1에서 인종적으로 지워졌다. 그리고 불교·유교·노장의 자연주의와 깊은 것이라. 한국민족의 생명력을 높이고 살리고 위하는 사랑과 자비의 선한 사업에 공동의 전진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기독교는 한국의 고등종교 문화에 대해 무지하고 폐쇄적이며 독선적 방어적 태세를 취하면서 정작 극복해야 할 사마니즘에 대해서는지

나치게 타협적이고 포용적이 다.

대승불교의 연기설과 공사상, 理事無得, 자비, 보살사상, 존재 신비주의의 깊은 명상과 자연과의 沈我一體의 한 일체현, 불독토전설의 진실한 현재주의들과 기독교는 진지하게 만나야 한다. 유교(儒敎)의 실천도덕 윤리사상은 한국인의 가치관과 생활규범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中庸이나 易思想 및 新儒學의 理氣說은 아직 기독교사상과 대화이전의 미개척지이며 우리가 어거스틴 안셀름 라이프니츠 못지 아니한 원효, 유곡, 퇴계들을 연구해야겠다.

노자사상(老子思想)의 순수하고 자연한 자연주의의 無爲自然思想은 기독교의 역사행동주의를 정화시킬뿐 아니라 인간을 근원적으로 자연그 자체로 환원시킴으로써 모든 오만과 허세와 다과적인 위적인 욕망에서 해방시켜서 예수의 순수한 신성수용의 세계로 안내한다.

최수운(崔水雲)의 종교사상과 한국민족문화의 광맥속에 다다지처럼 묻혀있는 정신적 광맥을 발굴하여 예수그리스도 진리 그 자체 생명의 그 자체의 빛으로 조명하고 재해석하고 또 역광으로 비추분으로써 세계기독교 신학사상 형성에 공헌해야 한다. 사도행전에 한국기독교교와 아니 라 요한복음적 한국기독교교와 로마서와 같은 한국기독교사상의 열매가 선교2세기에 맺어져야 한다.

그것은 결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계시된 구원과 사랑과 진리의 고백을 약화시키거나 상대화시키지 않고 도리어 더욱 분명히 뚜렷이 증명하는 일일 것이다. 한국기독교는 서양기독교 신학사상을 반복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창조이며 배워야 할 지식이고 그들 삶과 문화역사 전통속에서 그들의 자리에 형성된 것이다. 신학적 사대주의와 서구식화의 맹목적 추종자세가 극복되어야 한다.

사마니즘이 내포하고 있는 위함이 있는 것이다.

三、한국문화의 실체로 내면화 하여 문화형식을 통해 화하는 과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지난 백년 한국개신교의 역사기간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적 실체가 한국역사속에 심어지고 뿌리를 내린 착근기였다. 그동안 첫번때수화으로써 각종 문화적업적이 없 는바는 아니로되 한국인 심정 깊이 그 가치관의 심저에까지 기독교적인 것이 육화되고 체질화되어 다시한번 한국인 심정 본래의 토양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한국의 해방과 비바람을 맞아 탐스로운 열매들을 맺었다고 말할 수 없다. 과수밭으로 말하면 이제 과수들이 재자리를 잡고 어린가지들이 신기로운 첫열매를 맺었던 시기이다.

과수밭 농부는 충분한 퇴비와 재배관리를 통해 이해야 말로 탐스런 열매, 시장에 내놓을 상품이 늘기 위한 열매 맺게하는 기대의해가 곧 앞으로 전개될 개신교 제2세기의 과제이다.

문화신학자 파울 틸리히는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실체와 형식으로서 관계규정하여 표 현하기를 「종교란 문화의 신 위치는 세계 고등문화들이마

생명의 다이나믹, 충실성, 충만성, 유익성, 정열적이면서 무한한포용력을 지닌 개방성 은 기독교복음의 아해신앙과 예수의 정신으로 배대물추고 혼을 줄때 사마니즘은그 옛날 사무명시대 선전자무리 들이 야웨운동의 예언자무리로 변형되듯이 갱신시켜야한 다. 그렇지 않으면 사마니즘 이 한국기독교를 점어 삼켜 버리듯 기독교는 巫俗宗教化 해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지막으로 흘러들어오는 최종 정음지와 같은 운명을 가졌 다. 불교와 유교와 노장사상은 한국에 들어와 문화적으로 엄청난 개화의 열매를 맺 었다는 것은 국립박물관에전 시된 문화유산들이 곧, 불교 ·유교·도교의 종교적 실체가 그해심 알맹이로 되어도 자기공예, 불상, 회화, 건축, 문학, 무용, 서예등으로 표현 된 것이다.

이제는 교회건축을 하나짓더라도 기독교의 종교가 21 세기를 바라면서 갖는 꿈과 희망과 선교사명과 비전등이 작적으로 능히 표현해내는상 정적 기독교 건축양식이 개 발 연구되어야 한다. 교회중 탑은 오래된 전통양식을 어설피 모방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 더욱더 한국인의 심혼에서 울리고 감동주는 종교 음악과 미술양식이 나와야 하 겠고 인간성존의 분식과 해 멸과 구원을 주제로 한 참 으로 깊이 세계성과 한국의 특수성을 동시에 갖춘 대문 학 작품들이 나와야 한다.

교회현황과 재정의지원 과 격려없이 이러한 문화 적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다. 문화활동의 각계 각층에 무 한한 잠재력과 재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한국기독교는 갖고있다.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은 동경된채 사장된 채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적 영 역안에서의 영혼의 심적 감 중을 일으킬 애매지간에만들 어주는 소승적 기독교형태는 이제 백년으로서 족하다.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と 日本基督教団との 協約締結記念集会

日時..一九八四年二月八日(水)
午後七時~九時
場所..在日大韓基督教大阪教會會堂(大阪市生野区中川西二一五十一)
司式..金信煥牧師(在日大韓基督教會副總會長)
挨拶..後宮俊夫牧師(日本基督教団總會議長)
講演..「兩教會交流の歴史的反省と展望」
大塩清之助牧師(日本基督教団日韓連帶委員長)
合唱..在日大韓基督教関西地方會連合聖歌隊
参加者..約四〇〇人(兩教會より二〇〇人づつ)

良書推せん

- 聖書のことばと日本語 関根文之助 著 ¥2,000
- 獵師伝 徐錫達 著 ¥1,700
- 星を動かす少女 松田明三郎 著 ¥1,700

福永書店

わたしの歩んだ現代

飯沼二郎 市民運動を通し初めて見えてきた、現代日本の全休像を浮き彫りにする。 定価一五〇〇円

見えない人々 在日朝鮮人飯沼二郎著 過去35年の朝鮮支配と、戦後の差別と抑圧の実態を鋭く抉る。 一五〇〇円

泉への招待 三浦綾子 神への信頼を語る愛と祈りの言葉。 一五〇〇円

東京・新宿・西早稲田 日本キリスト教団出版局 ☎03-204-0422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3)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太栄ビル) 電話 052(682)1177 (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話 052(711)4398

〈手造り10年の実績〉

三喜建設株式会社

土地・分譲住宅・建築設計・施工

建設業者許可番号大阪府知事(般54)第19580
宅建免許番号大阪府知事(5)第6014

代表取締役 鄭 且 聲 (大阪教会長老)

本社ビル 大阪府守口市竜田通1丁目13番地
電話 (06) 991-3222 (代)

(KCPチエン・エアポートイワイ)

聖和商事

タイ王室に果実納品(14年間継続中)
大阪国際航空全機内食果実納品

代表者 禹 永 吉 (武庫川教会長老)

大阪府池田市空港1-7-15(大阪国際空港前)
TEL (店) 06-843-0816
TEL (自) 06-855-3865

自然を科学する ノエビア化粧品

(有)ノエビア総武

〈村田第一営業所〉

所 長 金 道 子 (船橋教会 執事)

千葉市村田町 665-5
電話 0472(61)3819 (63)7676